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박광국* · 최상일** · 주효진***

< 목 次 >	
I. 서 론	III. 조사설계 및 분석
II. 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IV.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밝혀내고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으로는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문화인프라의 구축,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발전의지 등 6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요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의 인지도가 상이한 것도 있었으나 대체로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단체장의 문화발전의지와 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서는 두 집단간의 인식이 상이하였으며, 문화인프라와 문화행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21세기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시대이자, 주민의 삶의 질

*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 성덕대 사회복지과 교수
 *** 영남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을 중시하는 지방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산업의 중심이 제조산업에서 정보·서비스·지식산업 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가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정치나 경제보다는 문화쪽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역의 경쟁력은 각 지방정부가 그들 지역에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차별화시켜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지역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경쟁력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경쟁력은 전통적인 지역의 물리적인 산업기반에 의해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 차별화를 통해 그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윤태범, 1998: 98).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별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데 이 중에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지역도 있다.¹⁾ 대표적인 지역문화행사로는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경주문화엑스포, 춘천인형극제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의 개최를 통해 지방정부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둘째,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문화행사의 개최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문화사업에의 중복투자를 가져옴으로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보다 큰 상위요인군으로 범주화될

1) 정홍익(1996)은 재선을 꿈꾸는 자치단체장에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전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정책이며, 문화정책은 정책평가를 할 때 경제성(economy),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iciency), 당선가능성(electability) 중에서 경제성과 당선가능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의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가능성을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으로 이미 서구사회에서 확인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한층 팽창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문화일보, 1996. 11. 28).

수 있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요인군에 대한 평가가 두 집단-정책입안자로서의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문화정책 집행대상자로서의 문화예술인-간에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각종 통계적 기법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이들 두 집단간에 문화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수록 문화정책의 집행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요인군에 대한 평가가 두 집단간에 차이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들 문제를 교정하는데 향후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II. 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정의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생존의 차원에서 생활의 차원, 즉 삶의 질이라는 차원으로 사람들의 관심영역이 변해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라는 의미가 다양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 문화의 개념이 다르므로 통일된 정의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화란 흔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이나 유산으로 이해되기 쉽다. 물품으로서의 문화는 그러한 물품이 생산된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삶의 방식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일부분이기에는 하나 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문화는 단순히 유형의 물적인 대상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활동이나 과정을 창출한다(김원배, 1998: 7). 유네스코(UNESCO, 1982)에서는 문화란 한 사회나 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을 말한다고 한다. 부연하면 문화는 어느 사회나 집단의 총체적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는 문화는 경제적이건 비경제적이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집단을 형성하고 조직화해 나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포함한다(Agnew, Mercer & Sopher, 1984).

이러한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동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서, 과거·현재·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개념에 관해 논의

되어 온 것들을 보면, Pick(1980)은 '예술가, 청중, 국가의 연계 및 조정영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Globerman(1987)은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예술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Swaim(1982)과 Mulcahy와 Wyszomirski(1995: 47-76)는 '다른 여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홍익(1992)은 문화정책을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민족의식의 배양, 가치관의 계도 그리고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임학순(1996)은 문화정책을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예술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예술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박광국(1999)은 문화정책을 '국가단위가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국가 개입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여러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정책이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까지 우리들은 문화보다 항상 경제개발이나 지역발전과 같은 경제위주의 정책들을 우선시 여겨왔으며, 문화란 배가 불러야 누리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문화정책 역시 일반대중이 아니라 특수한 문화예술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한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21세기가 지식정보사회화·세계화·개방화·시민사회의 성숙 등 문화의 세기로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국민의 정부는 문화를 사회의 중심가치로 두는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문화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10대 추진과제²⁾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문화정책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유심(1997: 24-29)은 문화정책의 영향요인을 정책형성단계의 제특성, 집행조직의 상호의존성, 집행기관의 성향, 명료한 정책지침, 정책환경으로 나누어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김문조(1998: 28-30)는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문화가치관의 변화,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행정체계의 개편, 문화인프라의 확충, 문화예산의 확충, 정책기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박혜자(1998: 222-225)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영향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문예욕구, 행정역량, 문예인프라, 문예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이들 요인들과 문화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³⁾ 그리고 박광국(1999)은 문화정책 집행성패를 좌우하는 요인군으로 크게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법적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⁴⁾ 또한 문화정책실무자들도 문화정책 영향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김순규(1996: 8-14)는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재정, 문화발전계획, 문화인프라, 지역문화축제를, 장수봉(1998: 32-34)은 지방문화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역정보문화체계의 확립, 정부의 문화예산확대, 문화행정전문가의 육성 배치, 풀뿌리 문화복지운동 등 아주 구체적인 영향요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문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 2) 창의적인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1세기 문화국가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②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③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 ④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⑤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⑥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 ⑦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제 구축 ⑧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⑨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⑩ 문화정책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 3) 분석결과 문화정책의 상관요인분석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문예인프라를 제외하고는 역할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민주성이나 대응성, 다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4)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군에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집행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조직내적 요인군으로는 문화행정담당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 몰입, 충성심을 그리고 법적 요인군으로는 법령의 명확성과 법령의 변동빈도 등을 설정해 한·미간의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영향요인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자들의 문화정책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자(연도)	영 향 요 인
김순규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한 인식 · 문화발전계획 · 지역문화축제 · 문화재정 · 문화인프라
김유심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형성의 제특성 · 집행기관의 성향 · 정책환경 · 집행조직의 상호의존성 · 명료한 정책지침
김문조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치관의 변화 · 문화행정체계의 개편 · 문화예산의 확충 · 문화산업의 육성 · 문화인프라의 구축 · 정책기구의 안정성과 지속성
박혜자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요인 · 행정역량 · 문예프로그램 · 문예육구 · 문예인프라
장수봉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지역정보문화체제의 확립 · 풀뿌리 문화복지운동 · 문화예산 확대 · 문화행정전문가의 육성 배치
박광국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요인 · 법적 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 제도적 요인

Ⅲ. 조사설계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대구광역시시의 공무원,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각 영향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영향요인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뒤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공무원, 문화예술인 집단별로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들의 인식도 평가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집단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들 설문지를 가지고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⁵⁾ 설문지 회수율은 공무원은 80.7%(배부 150부, 회수 121부), 문화예술인은 83%(배부 100부, 회수 83부)로서 전체설문지 회수율은 81.6%(배부 250부, 회수 204부)로 나타났다.⁶⁾ 회수된 설문지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sion 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직접면담(interview)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요인분석

지역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⁷⁾ 요인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모형을 추정하였고,⁸⁾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각회전방식들 가운데 하나인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또한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는 Kaiser의 기준을

-
- 5)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은 본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미술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 미술대전 2회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을, 음악분야에서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불교방송교향악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6)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분석에는 결손치(missing value)가 없는 공무원 114부(76%), 문화예술인 81부(81%)만을 사용하였다.
 - 7)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변수 크기의 4배 정도가 되거나, 총 표본수가 20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총문항수가 31개로서 표본의 크기가 변수 개수의 4배가 넘으며, 총 표본수도 200개 이상이므로 요인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 8) 주성분분석(PCA)은 최초 변인들의 변량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변량비율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요인을 찾고자 할 때 쓰는 요인모형결정방법이다(양병화, 1998: 271).

적용하였다.⁹⁾

〈표 2〉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설 문 문 항	요 인 적 재 치						공유치
	F1	F2	F3	F4	F5	F6	
9)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반영정도	0.793	0.022	0.094	0.004	0.043	-0.098	0.653
6)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몰두 정도	0.711	0.176	-0.083	0.234	0.167	0.103	0.675
10)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정도	0.623	0.051	0.048	0.256	0.084	0.238	0.596
8)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지식정도	0.579	0.097	0.106	0.200	0.453	0.113	0.652
7)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정도	0.518	0.286	-0.151	0.283	0.317	0.135	0.597
3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0.015	0.817	0.141	0.167	0.185	0.023	0.762
30)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0.060	0.816	0.197	0.078	0.123	0.015	0.758
28)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0.051	0.734	0.062	0.111	0.004	0.292	0.686
27)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0.017	0.678	0.119	0.056	-0.020	0.299	0.695
29)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문화예술인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0.283	0.589	0.171	-0.197	0.101	-0.104	0.631
24)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지역경제발전 기여정도	0.019	0.168	0.875	-0.021	0.199	-0.016	0.819

9) 고유치가 1보다 큰 것은 하나의 요인이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유치 값이 1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고유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1개의 요인이 변수 1개의 분산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종열·이재호, 1999: 32).

〈표 2〉 계 속

설 문 문 항	요 인 적 재 치						공유치
	F1	F2	F3	F4	F5	F6	
23)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지역이미지 기여정도	0.017	0.225	0.831	0.199	-0.016	0.082	0.790
22) 향토문화재·지역축제시 외부 관광객의 방문정도	0.042	0.196	0.737	0.205	0.100	0.174	0.697
21) 지역문화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정도	0.106	0.257	0.724	0.163	0.178	0.228	0.714
20)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도시로 서의 충분성정도	0.053	0.166	0.585	0.126	0.468	0.097	0.665
26)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홍보정도	0.401	0.401	0.402	0.263	-0.063	-0.043	0.564
17)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정도	0.109	0.137	0.127	0.780	0.162	0.136	0.701
16)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질적수준정도	0.146	0.042	0.248	0.705	0.137	0.039	0.649
15)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정도	0.257	0.078	0.337	0.447	0.126	-0.040	0.605
14)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양(수)정도	0.184	0.118	0.089	-0.004	0.688	0.144	0.590
11)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수준정도	0.270	0.061	0.352	0.254	0.595	-0.037	0.644
13) 지역문화예술시설 담당인원의 적절성 정도	0.014	0.187	0.209	0.352	0.568	0.099	0.554
1) 대구광역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0.062	-0.056	0.278	-0.111	0.074	0.749	0.673
5) 지역기업들의 문화예술부문의 투자정도	0.079	-0.015	0.201	0.048	0.135	0.733	0.608
3)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0.015	0.182	-0.027	0.146	0.084	0.710	0.568
2) 지방의원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0.289	0.194	0.384	-0.069	0.023	0.621	0.673
# 고유치 (Eigen value)	8.104	2.909	1.811	1.506	1.347	1.288	
# 전체변량 (Percentage of Variance)	28.0	10.0	6.2	5.2	4.7	4.4	
# 공통변량 (Cumulative Percentage)	28.0	38.0	44.2	49.4	54.1	58.5	

분석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2>와 같다. 즉, 설문 항목에 대해 요인으로 묶인 항목들은 요인적재치가 모두 0.4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그리고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들은 모두 6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58.5%를 설명하였다.

요인회전 후 추출된 6개의 요인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한 후 요인명을 부여하였는데, 요인 1은 문화행정의 전문성, 요인 2는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요인 3은 문화인프라, 요인 4는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요인 5는 문화행사의 다양성, 요인 6은 문화발전의지와 관련된 요인이라 하겠다.

2) 신뢰성분석

경험적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군별로 Cronbach's Alpha(α)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다.¹¹⁾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요인군들의 신뢰계수(α)는 0.8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3> 지역문화정책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F1 문화행정의 전문성	F2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F3 문화 인프라	F4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F5 문화행사의 다양성	F6 문화발전 의지
Cronbach's α 계수	0.90	0.89	0.89	0.89	0.89	0.90
문항수	5	6	6	3	3	4

- 10) 요인회전 후의 요인행렬에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0.30으로 낮게 잡을 수도 있으나, 엄격한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가급적 기준을 0.50으로 높게 만드는 것이 명확한 요인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명확한 요인구조를 만들기 위해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기도 한다(양병화, 1998: 324-3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요인회전 후의 요인적재치가 0.50미만인 문항들은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시도하여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요인군을 분류하였다.
- 11) 신뢰성분석은 설문지가 잘 정교화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분석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몇 가지 요인을 추출한 후 이들 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한다(정충영·최이규, 1998: 142).
- 12) 문항별로 분석한 신뢰계수(α)도 0.89로 나타나 각 문항별 신뢰성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T-검정

공무원과 문화예술인간에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¹³⁾

요인분석을 통해 6가지 요인군을 확인하고 각 요인군에 속하는 항목별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¹⁴⁾

①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행정의 전문성 요인에서는 두 집단간의 인지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식정도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지식에 대해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문화행정 담당공무원과 문화예술인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 즉,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문화배경과 공무원의 형식적이고 문서주의

〈표 4〉 문화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 문 문 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몰두정도	3.28	0.82	2.36	0.74	0.000
7)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정도	3.03	0.80	2.42	0.71	0.000
8)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지식정도	2.87	0.72	1.86	0.75	0.000
9)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반영정도	3.60	0.76	2.44	0.70	0.000
10)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정도	3.05	0.86	2.32	0.81	0.000

13)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은 아주 만족, 4점은 만족, 3점은 보통, 2점은 불만족, 1점은 아주 불만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고, 유의도는 $P < 0.05$ 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였다.

적인 문화적 배경이 어울리기 힘들다는 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둘째, 문화행정 담당공무원들이 문화관련부서를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어 승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남석모, 1995; 김순규, 1996; 임학순, 1996).¹⁵⁾ 이러한 현실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문화정책전반에 커다란 장애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의 의사결정에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정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들이 공무원들보다 낮게 반영된다는 응답을 보임으로써 지역문화행정이 아직까지 관주도형태의 문화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②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이라는 요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문화예술인단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라는 모든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지방정부와 문화예술인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에 대한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는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있으며,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지방문화원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담당 조직들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들 부처와 조직들은 상호 협력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대립을 하기도 한다. 그

15) 박광국(1999: 16-17)의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정책 비교연구에서도 미국에 비해 한국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구 모구청의 문화행정 담당공무원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문화행정부서를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6) 관이 문화행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문화행정을 주도하려는 이유로는 첫째, 문화예술인을 둘러리 삼아 치적과 잇속을 챙기려는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퇴출될 공무원의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셋째,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역민의 것이라 여겨 지역행정관료나 지역민이 행사를 독점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교수신문, 1999. 2. 1; 신동아, 1999년 2월호).

〈표 5〉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문문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7)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38	0.81	2.43	0.68	0.666
28)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43	0.82	2.43	0.80	0.781
29)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문화예술인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77	0.88	2.49	0.69	0.041
30)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40	0.84	2.32	0.87	0.600
3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37	0.79	2.38	0.85	0.746

것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주민 문화생활에 대한 염려보다는 각 조직과 부서의 영토를 두고 경쟁하며 공과를 다투고자 하는 성향도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송도영, 1997: 20).

따라서 문화정책은 문화적 창의성·산업적 조직화·기술의 발달·인력의 교육과 양성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문화체육부, 1997)고 볼 때 문화정책과 관련된 부처조직간의 상호협력과 이들 부처조직들과 문화원, 문예인 단체 등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상호협력체제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③ 문화인프라

지역의 문화인프라 요인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문화예술인 모두 문화예술시설의 양(수)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인프라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문화시설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공간의 개념이 종전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 수동적인 개념을 벗어나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문화공간으로의 개념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⁷⁾ 따라서 능동적인 문화공간의 개념을 수용한 문화인프라의 확보방안으로서는 일정 규모의 건물에 다목적 문화공간

〈표 6〉 문화인프라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 문 문 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수준정도	2.39	0.77	1.87	0.51	0.000
13) 지역문화예술시설 담당인원의 적절성정도	2.33	0.77	2.14	0.71	0.186
14)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양(수)정도	2.32	0.75	1.98	0.51	0.001

을 조성하는 방법 또는 문화거리 조성, 복합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부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이에 대해 대구시 모구청 문화국장은 지방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걸림들은 지방문화시설 운영조직이 지방행정조직의 일부로 되어 있고 하위직 공무원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은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결여되어 있어서 문화기관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 문화기관의 운영은 행정조직에서 분리시켜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⁹⁾

- 17) 최근의 옥외공간의 이용실태를 보면, 공원이나 고수부지 및 운동장 등에서 영화 상영·연극·음악·무용의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이 이루어져 일시적인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거리 축제를 통한 거리에서의 문화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 18)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독립된 학예연구실이나 변변한 자료실 하나없이 지금까지 한명의 학예연구사가 미술기획부터 잡다한 사무행정까지 담당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학예연구사가 공석이 된 지도 한달이 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일보, 1999. 6. 8). 미술계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나 위상으로 볼 때 적어도 독립된 학예연구실을 설치하고 최소한 3명의 전문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화비전 2000위원회 보고서(1998)도 전국의 문화시설 중에 전문가와 운영요원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19)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 공민관을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하되 관리직은 지방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운영하고 예술감독제로 프로그램 구성, 운영은 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또 재정운영은 정부지원, 자치 단체지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나 일반모금 등으로 3등분되어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④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표 7〉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문문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도시로서의 충분성정도	2.50	0.73	2.11	0.64	0.000
21) 지역문화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정도	2.42	0.79	1.98	0.69	0.000
22) 향토문화재·지역축제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	2.20	0.72	2.04	0.81	0.096
23)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지역이미지 기여정도	3.06	1.11	3.36	1.29	0.063
24)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지역경제발전 기여정도	3.14	1.00	3.25	1.10	0.167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이라는 요인에서는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도시로서의 충분성정도와 지역문화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정도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부정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특화로 지역의 생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발전의 기여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무원과 문화예술인 두 집단들 모두 달구벌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경제발전

20) 임학순(1997: 31)은 문화적 이미지가 도시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21) 미국 아스펜(Aspen)은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스키장 등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름음악제인 아스펜음악제를 창설하여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독일 뮌헨의 10월축제(Oktobrrfest)에는 연인원 6백만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약 5조원 정도가 된다.

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외국이나 타지역으로부터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그리고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행사의 다양성 요인에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의 양, 수준, 다양성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²²⁾ 특히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모자란다는 인지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개최하는 많은 문화행사들이 외형적으로는 갖가지 지역축제로서 펼쳐지고 있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문화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마구잡이식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표 8〉 문화행사의 다양성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 문 문 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5)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정도	2.47	0.78	2.07	0.62	0.012
16)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질적수준정도	2.50	0.77	2.20	0.62	0.655
17)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정도	2.37	0.74	2.29	0.72	0.211

22) 장영희 외(1996: 79)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고서에서는 문화행사수, 문화프로그램의 부족과 문제 점을 문화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역시 문화인프라의 수준과 운영상태가 문화행사의 다양성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인들 역시 문화행사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문화시설의 부족과 문화기획능력의 부족이라고 직접면담(interview)에서 밝히고 있다.

23) 대구광역시의 문화정책 담당공무원은 각 지역의 축제가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단순한 관객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⑥ 문화발전의지

문화발전의지의 요인에서는 단체장인 대구광역시장의 문화예술부문의 관심도에 대해 공무원은 높다라는 응답을 한 반면 문화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응답을 보여 단체장의 문화예술부문 관심도에 대해 가지는 인지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단체장이 문화예술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의 국제화와 문화산업부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면담(interview)에서 밝히고 있다.²⁴⁾ 그리고 지방의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부문의 대한 관심도는 공무원, 문화예술인 모두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기업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는 두 집단 모두 아주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²⁵⁾

〈표 9〉 문화발전의지에 대한 평균값 분석

설 문 문 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대구광역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3.88	0.83	2.29	0.69	0.000
2) 지방의원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2.57	0.80	2.06	0.75	0.000
3)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2.43	0.70	2.54	0.88	0.107
5) 지역기업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정도	1.97	0.76	1.74	0.66	0.034

24) 교수신문(1998. 12. 21)도 1998년 문화예술계를 결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중심주의 문화마인드로 인해 문화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문화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원들도 문화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 왜냐하면 문화예산은 소멸성 예산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문화예산의 효과는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만드는 사회간접자본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 다리를 놓는 예산은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쓰임의 후속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예산은 공연이나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화예산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축제를 본 시민의 정서속에 고스란히 남아 오히려 더 큰 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부문에 대한 많은 투자²⁶⁾와 관심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 10〉 지역문화정책 영향요인에 대한 집단간의 인식도 분석결과

설문문항	공무원		문화예술인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몰두정도	3.28	0.82	2.36	0.74	0.000
7)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정도	3.03	0.80	2.42	0.71	0.000
8) 지역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지식정도	2.87	0.72	1.86	0.75	0.000
9)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반영정도	3.60	0.76	2.44	0.70	0.000
10)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정도	3.05	0.86	2.32	0.81	0.000
29)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문화예술인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정도	2.77	0.88	2.49	0.69	0.041
11)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수준정도	2.39	0.77	1.87	0.51	0.000
14) 지역문화예술시설의 양(수)정도	2.32	0.75	1.98	0.51	0.001
20)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도시로서의 충분성정도	2.50	0.73	2.11	0.64	0.000
21) 지역문화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정도	2.42	0.79	1.98	0.69	0.000
15)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정도	2.47	0.78	2.07	0.62	0.012
1) 대구광역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3.88	0.83	2.29	0.69	0.000
2) 지방의원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2.57	0.80	2.06	0.75	0.000

과를 기대할 수 있다(원희석, 1997: 92). 그리고 IMF체제 이후 지역기업들의 재정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2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부문예산의 경우 2%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문화관광부, 1998).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두 집단간의 인식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요약하면 앞의 <표 10>과 같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였다. 첫째, 지역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문화인프라,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발전의지를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의 인지도가 상이한 것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의 지역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인식도 평가를 비교해보면 단체장의 문화발전의지와 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서는 두 집단의 인식이 상이하여 많은 불신감이 두 집단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집단간의 불신감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축제의 경우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축제조직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인프라와 문화행사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지역이벤트행사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데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독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지역축제의 개발과 지역문화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은 두 집단 모두 역할분담과 협력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상호협력과 공조를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두 개의 지배적 주도 집단이 성공적 집행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책임자는 향후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 집행요인에 대한 두 집단간의 인식도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부정적 시각에 대한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처방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환,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1996.
- 김순규, “문화자치시대의 개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0회 국가정책세미나」, 1996.
- _____,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6.
- 김일태·임우석, “도시행정의 문화화를 위한 전략,” 「도시행정학보」 제10권, 1997, pp. 1-20.
- 김원배, “도시경제와 문화의 역할,” 「국토」 제 7 권, 1997, pp. 6-13.
- 김유심, 「문화예술행사의 집행사례분석: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호정,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1993.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8.
- _____, “미래산업 주도할 문화산업의 육성,” 「국회보」 제 3 권, 1999, pp. 23-27.
- 도정일, “문화정책은 왜 필요한가,” 「민족예술판」 제 3 호, 1998, pp. 20-23.
- 박광국, 「문화정책 집행연구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제간 연구보고서, 1998.
- _____,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 보」 제 8 권 제 1 호, 1999, pp. 5-26.
- 박혜자, “지역문화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 보」 제11권, 1998, pp. 207-234.
- 류종수,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국회보」 제 4 권, 1998, pp. 27-29.
- 송도영, “시민공동체를 위한 도시문화정책,” 「국토」 제 7 권, 1997, pp. 14-21.
- 이세기, “신정부의 문화정책,” 「국회보」 제 4 권, 1998, pp. 4-6.
- 이종열·이재호, “환경영향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정책학회보」

- 제 8 권 제 1 호, 1999, pp.25-46.
- 임학순, “지방문화행정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 3 호, 1996, pp. 19-37.
-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출판, 1995.
- 윤태범,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사업의 활성화,” 「지방자치」 3월호, 1998, pp. 98-105.
- 원희석,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축제현황 개선방향,” 「지방자치」 12월호, 1997, pp. 93-96.
- 양병화,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1998.
- 장영희 외,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8.
- 정홍익, “지방문화정책의 변화와 진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0회 국가정책세미나」, 1996.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1992.
- 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 국정자료 98-5, 1998.
- 문화비전 2000위원회,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문화체육부, 1998.
- 대구일보·교수신문·문화일보·신동아.
- Agnew, John, Mercer, John & Sopher David, *The City in Cultural Context*, Boston: Allen & Unwin, 1984.
- Arian, Edward, *The Unfulfilled Promise: Public Subsidy of the Arts in Americ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 Bianchini, Franco & Michael Parkinson,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 Buchanan, James M., “Economic Science and cultural diversity,” *Kyklos*, Vol. 48, pp. 93-200, 1995.
- Cargo, Russel A., “Cultural Policy in the Era of Shirinking Government,” *Policy Studies Review*, Vol. 14: 215-224, 1995.
-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Mulcahy, Kelvin V. & C. Richard Swaim, *Public Policy and the Arts*, Co: Westview Press, 1982.

Mulcahy, Kelvin V. & Wyszomirski, Margaret Jane, *America's Commitment to Culture: Government and Arts*,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eacock Alan & Rizzo Ilde,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994.

Pick John, *Arts Administration*, E. & F . N. Spon: London, 1980.

Steven Globerman, *Culture, Government and Markets*, Fraser Institute: Vancouver, B.C., 1987.

UNESCO,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Paris: UNESCO, 1982.